

보도시점 2026. 6. 10.(수) 15:00 배포 2026. 6. 10.(수) 10:00

관세청,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신설 ... 지역별 첨단전략산업 밀착 지원으로 미래 경제성장동력 육성 지원

-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과 전국 7개 세관에 「원스톱 지원반」을 연계하여 지역별 첨단전략산업 육성
- 첨단전략산업 공장·단지 구축부터 제조·수출까지 모든 단계 현장 밀착지원

관세청은 6월 10일(수) 반도체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발전과 수출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하 원스톱 지원팀)과 서울·부산·인천·대구·전남광주·강원·제주 등 전국 7개 세관에 「원스톱 지원반」을 설치하고, 평택세관에서 개소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욱 관세청장은 반도체 공장(FAB) 건설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소재한 반도체 보세건설장* 현장을 둘러본 후 원스톱 지원팀 개소식에 참석하였으며, 원스톱 지원팀 개소식에는 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 수출기업 및 협력업체** 등이 참석했다.

*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 기계·설비·공사용 장비를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장치·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곳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아이피에스, 싸이머코리아, 두산테스나

이번에 과 단위 원스톱 지원팀이 신설되는 평택세관은 평택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청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이 집중된 첨단전략산업의 거점*이다. 특히 수도권과 남부를 잇는 ‘허리’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어, 그동안 현장 밀착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평택·천안·아산) 삼성전자·SDI·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 (청주) SK하이닉스, 에코프로, LG전자 등

※ [수출실적, 2025] 경기(24.9%) > 충청(18.5%) > 울산(12.3%) > 경상(12.2%) > 인천(8.5%)

평택세관에 신설된 원스톱 지원팀은 본부가 아닌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최초의 과 단위 자율기구*로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에 따라 기존에 수출입기업지원부서가 없던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지원팀을 마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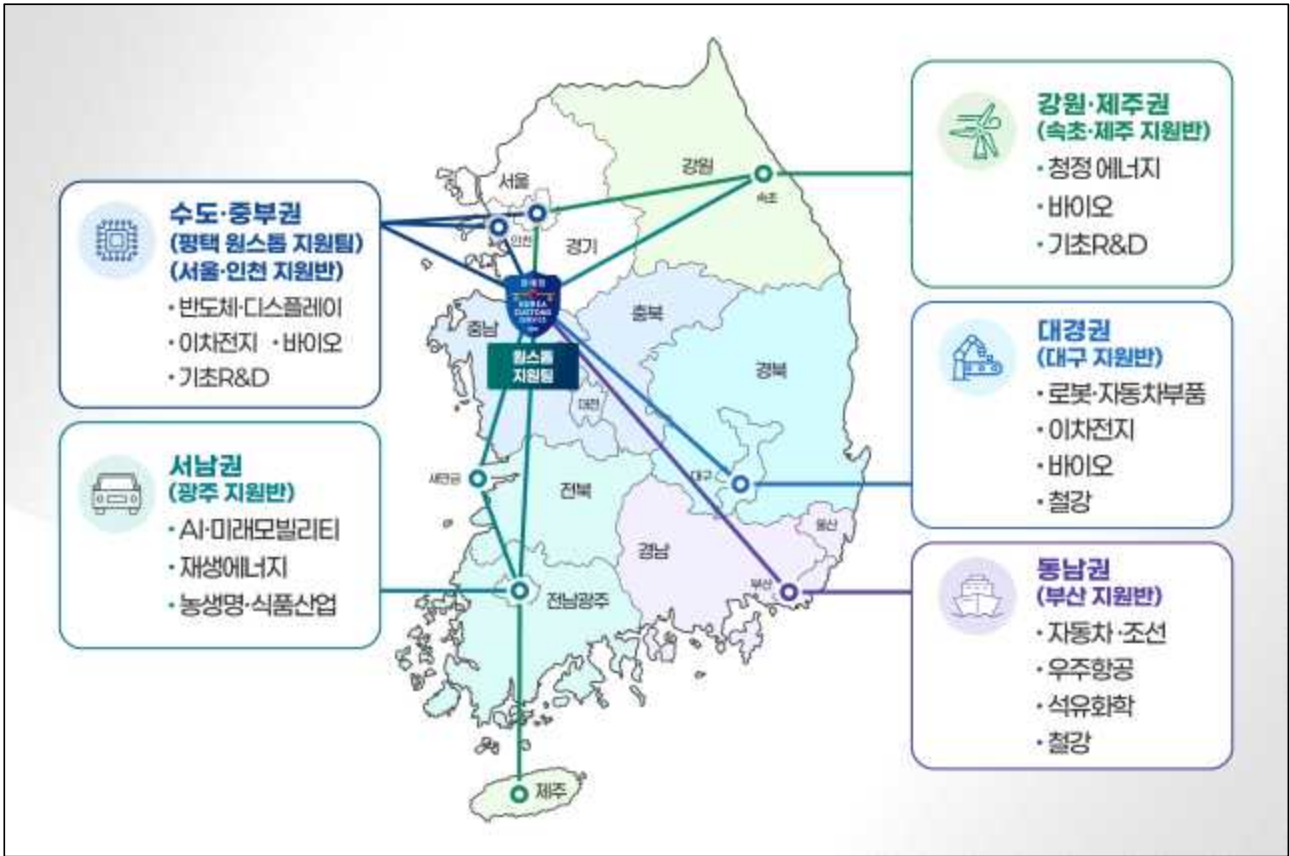
* 국정과제, 역점사업, 국민안전 대응을 위해 기관장이 '임시정원'을 활용해서 설치·운영

원스톱 지원팀은 앞으로 첨단전략산업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등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 단계부터 제조·수출 및 사후 지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이 집약된 중부권을 시험대로 활용하여 선결 지원방안을 우선 적용·검증한 뒤, 이를 전국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전남광주 권역 5개 본부세관과 속초, 제주의 2개 세관 등 총 7개 세관에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반」을 신설하고, 이를 평택세관의 원스톱 지원팀과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하여 전국의 지역별 첨단전략산업도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 지역별 네트워크 >



먼저, 서울·인천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의 원스톱 지원팀은 수도권·중부권의 반도체, 바이오 산업 등 지원을 위해, 용인·평택의 반도체 클러스터,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클러스터 구축 단계부터 기계·설비품을 과세보류로 설치하고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생산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 관세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둘 이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

부산본부세관의 원스톱 지원반은 동남권의 케이(K)-조선, 미군함 정비·수리·개조(MRO), 북극항로, 석유·화학 산업 등 지원을 위해서, 선박 건조에 필요한 거대 원자재를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를 확대하고, 환적 목적으로 반입된 외국 석유제품도 친환경 선박유로 블랜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제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외국 원료 및 재료를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제조·가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공장

대구본부세관의 원스톱 지원반은 대구·경북권의 철강, 이차전지 산업 등 지원을 위해서, 철강재를 포함한 기반산업품목의 중국산 덤핑 반입 등 불공정 행위방지를 위해 보세공장 특허 심사를 강화하고, 이차전지 등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외부 시험·검사용 건품의 반출입 절차를 세관의 허가나 반출입 신고없이 기업 스스로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의 원스톱 지원반은 서남권의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인공지능(AI)·로봇·부품 클러스터 예정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클러스터 건설부터 완공 후 제품 수출까지 과세보류·면세 등 각종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속초 및 제주세관에 신설되는 원스톱 지원반은 강원·제주권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육지에서만 가능했던 보세건설장 특허를 해상풍력단지, 해양 플랜트 등 해상에서도 보세건설장 특허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과세보류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스톱 지원팀은 야간 또는 공휴일에 발생하는 긴급한 수출입 통관이나 생산라인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통관애로 해소 및 미국의 관세정책 변동이나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충격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 컨설팅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원스톱 지원팀 설치로 지역 첨단전략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애로사항 신속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부권 첨단전략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팀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인 만큼 전국 거점별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중심으로 공장·단지 건설에서부터 제조·수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세 등의 부담 없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과세보류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를 과감히 혁신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세청 보세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진선 (042-481-7750)
		담당자	주무관	이윤석 (042-481-7826)
담당 부서	평택직할세관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	책임자	과 장	김현주 (031-8054-7011)
		담당자	사무관	박종호 (031-8054-7013)

